

# 성 체

253. 살아있는 본보기. 우리를 지탱하고 밀어 부치는 신비로운 힘이 호스티아(Hostia)가 되신 하느님의 신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에 끝까지 항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거쳐 흐르는 그분의 침묵, 완전히 자신을 낮추신 그분의 비하, 보이지 않으나 활동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인류 역사를 지켜보시며 기다리십니다. 여러 민족과 국가, 세계 역사의 모든 장, 그 중에서도 영혼들의 역사와 그들의 거부와 함락을 지켜보시며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루, 이틀 단조롭게 돌고 도는 역사 속에서...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무한히 자신을 낮추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밤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 그 곳에서 지칠 줄 모르고 나를 부르시며 나의 희망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목마름을 덜어 주시고, 나의 무능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갈망에 활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거기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기다리시는 바로 그곳에서, 나도 내 응답에 항구해야 합니다.

254. 감실을 꿈꿉니다... 매일 아침의 영성체를 꿈꿉니다... 정갈한 밀로 빵이 되신 예수님을 꿈꿉니다... 미친 사람처럼 나의 보물을 찾으려 갑니다. 부활의 아침,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분을 찾으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찾습니다. 배고파하며 성체를 모십니다. 그리곤 다시 배고픔을 느끼기 위해 영혼을 준비합니다. 미사 때 축성되는 호스티아에 결합되어 모든 이가 먹을 수 있도록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살

아있는 호스티아가 되기 위해...

255. 그대 자신이 감사의 찬미를 노래하는,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성체가 되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빵을 청합니다... 그들은 같은 한 분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대의 빵을 주십시오. 그 빵은 아버지의 빵입니다.

256. 그대가 불을 호흡하고, 그대의 불이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그대의 삶은 성체의 심오한 신비가 될 것입니다.

그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미소와 열정 뒤에 숨어계신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고동치고 있음을, 하느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대의 허무를 통해 모든 이에게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257. 저는 제 삶의 여정에서 생명을 만났습니다.  
**생명...!** 영원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맥박, 영혼을 흠뻑 취하게 하는 신비가 기다리는 천상 아버지 집의 소식!

미사는 그 비밀을 내게 가르쳐줍니다. 거룩한 미사는 최후의 만찬과 겿세마니, 그리고 골고타의 숨겨진 비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거룩한 미사... 그것은 나의 골고타, 나의 수난의 신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숨결이 들리고, 사랑으로 뛰는 고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서 스승님께 찾고 있는 모든 비밀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사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 강렬한 갈바리오의 수난의 시간들을...

주님, 저로 하여금 감사에 겨워 경탄할 줄 아는,

당신 신비에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거룩한 미사의 강렬한 순간들 안에 간직된 순수한  
본질들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  
소서.

258. 제대에서 날마다 바쳐지는 당신의 그 희생에  
저를 받아 주소서. 당신께서 저를 대신해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희생이 저의 희생이 되게 하소서.

259. 감실은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모세에게 감실  
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어떤 성전을 지어드렸겠습니  
까?

우리 삶의 중심인 감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  
어도, 그들이 했을 만큼은 합시다.

260. 성체... 성체... 매번 이렇게 당신을 부를 때마다, 제 영혼 안의 신비가 자라남을 믿습니다. 그 신비는 제게 모든 것입니다.

261. 매일 아침 당신이 숨어 계신 그 곳에서 당신을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숨으소서.

262. 저에게 배고픔을 주소서... 목마름을 주소서... 굶주린 자를 위한 그 빵에 다가갈 수 있게 하소서.

263. 그대에게 성체의 신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가 성체의 포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대는 성체의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온전히 그렇게 되십시오.

264. 성체를 목말라 하십시오.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분 발치에서 자신을 사르고자 하는 목마름, 항상 그분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 그분에게서 결코 시선을 떼지 않으려는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자유로운 날, 자유로운 시간, 잠시 틈나는 순간마다 언제나 성체으로 향하십시오.

265. 그분의 발치에 머무는 것에 지치지 마십시오.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을 응시하십시오. 마치 베타니아에서 마리아가 그분을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녀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66.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 안에서 작은 희생이

되십시오. 그분께 먹히도록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267. 하느님, 감사 드립니다. 저를 심판하시기 앞서 먼저 당신 아드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신비로운 피앞에 당신은 저항할 수 없으셨습니다. 제가 심판대에 오르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하느님 감사 드립니다. 미칠 듯한 그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제게 성체를 주셨음에 감사 드립니다. 매일의 미사로 하느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에 감사 드립니다.

268. 성체... 감실... 생생히 현존하시는 하느님. 우리



모두 살아있는 불꽃이 되어 버린 그대를 필요로 합니다. 그대의 불을 땡기기 위해 그 분께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일어 죽지 않게 온기를 주고, 그분의 불로서 불이 되며, 그분 불가마의 불꽃이 되고, 그분 신비의 타오르는 불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불안에서 모든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 불에 다가가십시오. 완전히 타버려 하느님의 재가 되어버리기까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69. 성체는 모든 신비의 중심입니다. 이 성체의 신비 안에 그대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대가 이 신비를 살아 간다면, 그대의 삶은 평화와 사랑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먹히도록 맡기십시오. 성체를 영하고 동시에 밥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느님 그리고 교회 전체와의 친교를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270. 성체의 신비로운 중심에 예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맥을 통해 그 비밀에 접근 하고, 일치와 동맥을 통해 그를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참되고 안전한 길인지 그대는 보게 될 것입니다.

271. 성체의 신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체... 성체는 겸손, 비하, 어두움의 신비입니다. 살아있는 침묵과 영원한 비밀의 신비입니다.

272. 축성(Consagracion)..., 그리고 영성체. 모든 이가 축성된 당신의 호스티아를 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이 굶주림을 채우려 할 때 호스티

아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273. 희생의 첫 돌 제단은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첫 번째 미사가 거행되었던 복되고 신비로운 제단! 성자께서 계신 곳에 미사가 있고, 희생과 찬미가 있습니다. 성자가 되십시오. 그대의 삶이 미사로 변할 것입니다..

274. 첫째, 멧돌이나 불을 두려워하지않고 빵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필요한 만큼 쪼개지고 쪼개진 조각마다 온전히 신비를 간직해야 합니다. 셋째, 아무도 굶주리지 않도록 자신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그리스도의 빵이 되는 길입니다.

275. 그대의 마지막 숨결까지 축성되도록 말기하십시오. 빵과 포도주... 하느님의 신비... 그대의 삶이 저

위대한 신비의 빵과 포도주가 된다면... 티끌 같은 그대의 존재 아래 화산 같이 무한한 사랑의 맥박이 뛰고 있다면, 온 교회는 이로 인해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276. 성체, 빵이 축성되는 신비! 빵이 되신 하느님. 아니, 이 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된 빵! 제 말이 너무 했나요? 하느님... 하느님... 어느 것이 더한 것입니까? 말씀하소서. 어느 것이 더합니까? 당신께서 빵이 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빵이 당신이 된 것입니까? 상관 없습니다! 오, 무한하신 하느님의 미칠 듯한 사랑이여!

밀가루의 축성! 진흙덩이의 축성!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빚어내신 진흙덩이를 만지시며 그 안에 담겨 있는 한 줄기 생명, 사랑의 신비를 새로이 축성하는 또 하나의 심오한 신비입니다.

277.“하느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요한

3,16), 그 사랑을 되살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미사를 주셨습니다.

278. 희생... 번째, 이해하시겠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는 희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성덕은 나날의 이런 자기 희생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279. 그 누가 하느님께 그렇게 가까이 다가 갈 엄두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깨뜨리시어 그 거룩한 신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심으로써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고자 서두르시는, 사랑으로 두근거리는 그분의 맥박소리를 들어 봅시다. 매일 우리가 참례하는 미사의 희생 제사에서 쉬지 않고 흐르는 그 따스한 성혈에 우리

의 삶을 적십시다.

280. 미사는 나의 변모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사제께서 당신 손으로 나를 이끄시어 성부께로 인도하십니다. 단지 당신 손으로 잡아주시는 것만으로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눈을 내게서 돌리지 않으시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성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아들이라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281. 미사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존재의 말단 조직까지, 마지막 숨결까지 스며드는 새로운 상태입니다.

미사는 새로운 삶이며 이를 통해 위대한 봉헌이 가능해집니다. 미사를 통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282. 내 가난한 영혼이 감실의 침묵 속에서 기운을 얻고 이 고독한 신비로부터 영혼을 성화시키고 신화시키는 침묵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침묵과 자유, 깊은 흠숭의 끊임 없는 제사를 완벽하게 봉헌한 최초의 수도승이었습니다

283. 내 영혼을 즐기치게 따라 다니는 성체에 대한 목마름을 그대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대의 해결책은 성체를 미친 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체로 살아가고, 끝없는 성체의 바다를 힘차게 노저어 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성당 가운데 우뚝 솟아 오른 저 신

비스러운 '감실의 바위'에 고정된다면, "나는 생명이 다."(요한 11.25)라고 말씀하시는 힘으로 영혼을 파고 드는, 저 강렬한 생명의 힘이 그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바로 그대의 생명입니다. 그 신비스러운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284. 만일 그대가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자존심으로 속이 상해 있을 때, 일상생활의 힘든 일들로 지쳐 있을 때, 감실이라는 신비로운 등대를 찾아 거기 성체의 그늘 아래 앉으십시오.

"당신의 그늘 아래 앉으니 나는 마냥 좋으니이다."(아가 2, 3) 열렬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갈망으로 목말라하며 거기 앉으십시오.

285. 그대가 성체께 충실하다면, 성체께서도 그대에게 충실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성실한



이에게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까? 한 영혼이 그분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일을 그 영혼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286. 미사를 통해, 우리의 삶은 사랑의 위대한 봉헌으로 변화됩니다.

287. 한번의 영성체를 위해 세상의 모든 보물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물, 값지고도 심오한 하느님의 선물... 영성체는 계속하여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288. 여러 번의 미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미사가 있을 뿐입니다. 한 분이신 성부, 한 분이신 성자, 한

분이신 성령, 오직 한 분의 하느님 밖에 계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부께 바치는 성자의 희생, 그 단 하나의 희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한번의 희생이 인류의 전 역사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고 그 후에 따르는 희생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 역사 속에 단 한번 있었던 그 위대한 미사와 관련되고 접목되어 있을 때에 비로써 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는 2천년 동안 거행되었지만 아직 개시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날마다 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 졌습니다.

289. 성체... 성체... 감사제전... 축성된 빵... 축성된 삶... 모든 것이 축성되었습니다.

축성! 이는 세례성사의 위대한 신비가 절정에 다른 것입니다.

290. 주님, 오늘 영성체의 대가로 무엇이든 다 요구  
하소서!

291. 성체성사는 언제나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지  
금은 여느 때 보다 조금 더한 것 같습니다. 이는 저  
의 온 생애가 성체의 열기로 연마되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실은 나의 존재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